

## 조치원여자중학교 여러분께

한국 조치원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41통의 엽서 감사합니다. 한 통 한 통 빠짐없이 읽어보았습니다. 엽서 중에는 “더 이상 일본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과서를 가르쳐서는 안된다. 일본 학생들을 위해서도 올바르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자”고 한 의견이나, “일본 학생이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거짓 내용이 쓰여진 교과서라고 항의해야 한다”고 써 주신 사람도 있어 조금은 놀랐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엽서에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일본 역사이해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시한 문헌과 옛 지도는 여러분이 배운 『독도 바르게 알기』와 같습니다.

그 중에, 조치원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대다수가 언급하고 있는 증거가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을 때, 독도도 512년에 한국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제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곳에는 우산국에 관련된 설명이 있으며, “혹은 이름을 울릉도라 하고, 지방 100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우산국이 울릉도였던 것, 그리고 우산국의 범위는 ‘지방 100리’로, 그 넓이는 행정구역상 ‘군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100리’인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지철노왕(智哲老王))에 있는 기록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지철노왕은 『삼국사기』의 지증왕과 동일 인물로, 『삼국유사』에도 신라인 이사부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읽어 보면, 우산국 주변은 ‘둘레가 2만 6천 7백 30보’였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둘레’란 우산국 일주(一周)가 ‘2만 6천 7백 30보’였다는 뜻입니다. 한 보(步)는 대체로 1.6미터이기에, 우산국 일주는 42,768미터가 됩니다. 이 숫자는 울릉도 일주 거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독도 바르게 알기』 등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만, 『삼국사기』의 ‘지방 100리’나 『삼국유사』의 ‘둘레가 2만 6천 7백 30보’에 따르면, 우산국은 울릉도 한 개의 섬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었다고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영토로 여기는 독도는, 그러한 우산국에서 87,4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근거로 해서는,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령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우산국에 포함되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는 증거는 있을까요?

이것은 1770년에 쓰여진 『동국문헌비고』에,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은 왜나라가 말하는 송도(松島)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한국 연구자들은 『세종실록』의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우산도를 독도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의 ‘지방 100리’나 『삼국유사』의 ‘둘레 2만 6천 7백 30보’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사실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산도를 송도(다케시마)라고 증언한 것은, 안용복이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안용복은 1696년 6월, 일본 돗토리 번(鳥取藩)에 밀항하여, 귀환 후 조선 정부의 심문에 대해, “돗토리 번의 번주와 교섭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진술 진위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용복이 돗토리 번에 밀항해 오기 1년 전,

에도(江戶) 막부는 돗토리 번에게, 울릉도와 송도는 돗토리 번의 영지인지 조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돗토리 번은 1695년 12월, 울릉도와 송도는 돗토리 번의 영지가 아니라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는 조선에 가깝다는 이유로, 오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게 울릉도 항해를 금지했습니다. 그 때, 막부는 오오야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 주었던 울릉도 '항해면허'를 회수했습니다. 막부가 허가했던 것은 울릉도 항해였기 때문으로, 조선과 쟁점이 되지 않았던 송도(현재의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용복이 돗토리 번에 밀항해서 귀국한 것은, 에도 막부가 울릉도 항해를 금지했던 5개월 후인 1696년 6월입니다. 이 때, 돗토리 번에서는 막부의 지시에 따라, 안용복 일행을 추방했습니다. 그 사실은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출판한 문헌(『이나바노쿠니에 조선인이 도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분고노카미님께 문의한 내용 및 회답, 기타 전말에 관한 기록(因幡國江朝鮮人致渡海候付豊後守様へ御伺被成候次第并御返答之趣其外始終之覺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면에 있어서, 안용복은 돗토리 번의 번주와 교섭을 한 적이 없으며,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귀환한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만났던 일본 어민에게, "송도는 즉 우산이다. 이것 또한 우리 땅이다"고 질타하고, "돗토리 번의 번주와 직접 교섭하여 울릉도와 송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였다"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용복의 증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도 막부가 울릉도 항해 금지를 명했던 것은 안용복이 돗토리 번에 오기 5개월 전입니다. 안용복이 돗토리 번에 왔을 때에는, 이미 울릉도 항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안용복이 돗토리 번에 밀항해 온 것과 에도 막부가 울릉도 항해를 금지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안용복의 증언이 실려 있는 것이 『숙종실록』입니다. 이것은 돗토리 번에 의해 추방된 안용복이 귀국 후, 죄인으로 조선 정부의 취조를 받았을 때 진술 조서의 일부로, 안용복의 증언이 곧 역사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안용복의 진술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의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어떤지, 다른 문헌이나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교과서는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증거로 생각하고 있는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나 '칙령 제41호(勅令第41号)' 등에 대해서도 '문헌비판'해 보면 어떻습니까?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령이었다고 하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안용복이 돗토리 번의 번주와 교섭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했다고 하는 진술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독도는 한국령이다'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문헌비판'을 하여,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인의 의견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문헌비판'의 성과에 관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치원 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저에게 편지나 엽서를 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11일

제 4기 시마네 현(島根県)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